

□ 미 수은, 2014 회계연도 첫 7개월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수출에 11억달러 지원

- 미 수은 Fred P. Hochberg총재, 미-아프리카 에너지 장관 회의(U.S. Africa-Energy Ministerial)에 참석해 미 수은이 對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수출에 11억 달러*를 지원했다고 발표

* 2014 회계연도 첫 7개월간 수치, 미 수은의 회계연도는 전년도 10.1.~당해연도 9.30.

- 동 회의는 오바마 대통령의 “Power Africa” 이니셔티브의 일환으로, 신재생에너지원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

* Power Africa : '13년부터 5년간 사하라이남 아프리카(sub-Saharan Africa) 6개국에 70억 달러를 투입(민간사업자 투자분 제외)하여 전력공급을 확대 하려는 방안

- Hochberg 총재는 고속성장 중인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의 에너지부문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진출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힘
- 미 수은은 Power Africa의 일환으로 지난 5년간 對 사하라이남 아프리카 수출에 대해 50억 달러 이상 지원해 왔으며, 2013 회계연도에 188건을 승인하는 등 지원규모 및 지원건수를 증가시키고 있음